

전남도, 폭염 피해 최소화 온힘

22개 시·군과 공동 전담팀 운영 예방활동 강화 저감시설 확충·쉼터 냉방비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전남도가 폭염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열성 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미 22개 시·군과 함께 폭염 특별전담팀(TF)을 꾸려 분야별 폭염피해 예방활동과 피해상황 접수 등 상황근무체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에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4일 현재까지 12일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는 7월 1일 첫 폭염 특보가 발표됐으며 이어진 기간은 2일에 불과했다.

4일 기준 전남에는 담양, 나주, 화순 등 3개 군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1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

효 중이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곳은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5도를 넘겼다.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전남에선 2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환자들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취약계층에 대응물품을 지급하고, 다중이용시설에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면서 살수차 및 양산 대여 서비스를 하는 등 도민이 일상에서 피해 없이 폭염을 극복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완화된 만큼 무더위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해 노약자, 취약

계층, 일반인 모두가 더위를 피하도록 7611개의 무더위쉼터를 전면 개방 중이다. 폭염에 취약한 영농작업자와 건설공사 야외근로자는 드론 예찰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보 기간 중 매일 살핀다.

일선 시·군은 읍면동장, 이동장, 재난도우미가 관내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전화해 안부를 묻고, 전화 미응답 주민은 직접 방문해 건강점검을 하는 등 전남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경중 전남도 자연재난관리팀장은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우리나라를 비껴가면서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한 외출 시 모자와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더위 쉼터 경로당 냉방기 점검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4일 광주 북구 노인복지과 직원들이 관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냉방기 작동유무와 쿨스카프를 나눠 주는 등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 AI반도체 공공분야 서비스 실증 기업 지원

AI사업단, 2차 실증기업 모집 반도체 성능 고도화 검증

광주시가 국내 AI(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공공 분야 서비스 실증 기업 지원에 나선다.

4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사업단)에 따르면 국내 AI 반도체 기반 공공 분야 AI 서비스 실증을 수행할 기업을 모집한다.

AI사업단은 국내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한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 2차년도 과제를 진행한다.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은 국내 AI반도체 기업의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독자적 기술력과 레퍼런스(실증 사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AI반도체 기반 서버 및 응용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사업으로 AI반도체 관련 기술 및 실증 역량이 있는 기업과 기관 등을 선정하고 2년간(1차년도 평가 통과 시) 추진하고 있다.

AI사업단은 지난해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을 위해 NHN(주), SKT(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산 AI반도체인 SKT SAPEON X220(87TOPS·초당 87조번의 정수 연산처리)에 대한 성능 검증과 3개 응용 서비스(민간 분야 2건, 공공

분야 1건)에 대한 응용 실증 과제를 수행했다.

AI사업단은 올해 2차년도 사업 과제로 NHN-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기술 개발 AI반도체 서버 시스템에 적용할 공공 서비스를 선정하고, 실증 레퍼런스를 추가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차년도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 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수행 기업을 선정한다.

일차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2차년도 AI반도체 실증을 통해 국내 AI반도체의 공공 분야 서비스 실증 환경 체계를 구축하고, 실증 레퍼런스를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공분야에서 국내 AI반도체 응용 서비스 실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실국장·부단체장 등 20명 인사

전남도는 고미경 기반산업과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실·국장, 부단체장, 준국장 전보인사를 4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국장급 전보 6명, 부단체장 9명, 준국장급 5명 등 모두 20명으로, 목포 부시장에는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 나주 부시장에는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이 광양부시장에는 주순선 전략산업국장이, 도민안전실장에는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이, 대변인에는 고미경 기반산업과장이 임명됐다.

업무성과·역량·리더십 등을 반영했고, 실국장·

준국장의 경우 해당 분야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해 적임자를 배치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단체장의 경우 대변인·인구청년정책관 등 업무 성과가 뚜렷한 준국장을 우선 선발했고, 시·군 정책수립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면서 도-시·군 간 상호협력과 소통 등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5일 자이며, 과장급 인사는 이달 중순경, 5급 이하 인사는 7월 말 조직개편을 거쳐 8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16년만에 여성 대변인 고미경 임명

전남도가 5일자로 단행하는 인사에서 대변인으로 여성인 고미경(52) 기반산업과장이 임명됐다.

전남도 대변인에 여성이 기용된 것은 지난 2006년 배양자 공보관 이래 16년 만이다.

고 대변인의 발탁은 전남도 행정에 대한 꼼꼼하고 치밀한 대외 행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 신임 대변인은 목포 출신으로 지난 1992년

공직에 입문, 전남도 총무팀장·희망인재육성과장·기반산업과장 등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지금까지 해 온 역할을 조금 더 잘하라는 기대와 책임 부여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남도민에게 전남 행정을 적극 알리고 이해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신임 대변인은 업무처리를 명확하고 주변 선후배를 잘 챙기는 등 조직 내에서도 신뢰가 두터하다는 평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임 전남도 실국장 프로필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갖췄으며 모든 업무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 한국에너지공대의 조기 개교, 해상풍력 본격 시동 등의 실적을 남겼다. ▲해남(57)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지역 발전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고 주변을 잘 챙겨 조직 내 신뢰가 두터워 전남의 역점사업인 해상풍력산업을 맡게 됐다. ▲담양(53) ▲기업도시담당관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정직하고 끈은 성품으로 정평이 나있다. 평소 전략산업에 대한 높은 열정을 보였으며, 해당 분야의 경험을 내세워 이 자리를 자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순(58) ▲화순부군수 ▲도민안전실장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유연한 사고와 합리적인 성품으로 무난하게 업무를 처리해왔다. 새로운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선진 문물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 기대를 받고 있다. ▲광양(53) ▲보성부군수 ▲광양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품에 미국 유학을 다녀온 학구파다. 업무 추진력이 탁월해 전남도 농축산식품 행정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목포(54) ▲감사관 ▲목포부시장
정찬균 광양경제청투자유치본부장	부드러운 성품과 무리하지 않는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여수엑스포 개최, 전남도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정책 등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 ▲나주(57) ▲자치행정국장 ▲나주부시장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